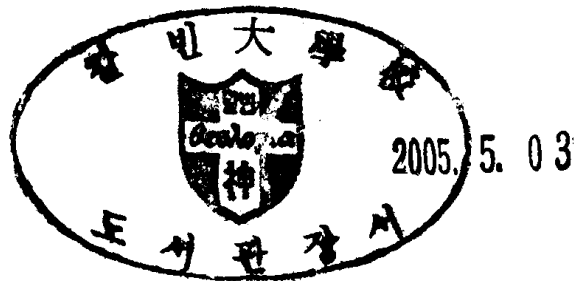


2004학년도

목회학석사 학위논문

한국교회 성장전략에 대한 연구
-개혁주의 신학적 접근-



칼빈대학교 신학대학원

신 학 과

김 형 준

한국교회 성장전략에 대한 연구
-개혁주의 신학적 접근-

지도교수 강 정 진

이 논문을 목회학석사 학위 (M. Div.)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12월

칼빈대학교 신학대학원
신 학 과
김 형 준

김형준의 목회학석사 학위논문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심 사 위 원 _____

심 사 위 원 _____



목 차

서론	1
1장 한국교회의 발자취	3
1. 한국교회의 성장 요인	3
2. 한국교회의 좋은점	6
1) 개혁주의 토양	6
2) 말씀중심의 신앙	7
3) 기도중심의 신앙	7
2장 개혁주의 입장에서 바라본 한국교회의 문제점	9
1. 한국교회의 문제점	9
2. 교회성장 운동에 대한 개혁주의 평가	11
3. 개혁주의 입장에서 바라본 한국교회의 문제점	11
3장 새로운 패러다임과 한국교회	16
1. 농경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16
2. 미래교회의 위치	17
3. 21세기 교회가 버려서는 안 될 것들	18
4. 세계화 지방화 시대의 한국교회	20
5. 세계화 시대의 한국과 한국교회	22

4장 21세기 한국교회의 전망	24
1. 신세대의 출현	24
2. 가속적 변화	25
5장 21세기 한국교회의 성장 전략	27
1. 개교회주의 퇴조	28
2. 출석교인의 감소와 헌금의 상승 현상	28
3. 평신도 사역의 극대화	29
4. 조직교회에 대한 반대	30
5. 교회의 일치와 에큐메니즘의 활성화	30
6. 교회 마케팅 이론의 발달	31
7. 영성적 기능의 부활	33
8. 디아코니아의 발달	34
9. 교회 정치의 민주화	34
10. 여성의 교회 정치 참여의 증대	35
11. 목회 구조의 대변혁	35
결론	37
참고도서	39

서론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경이적인 성장으로 많은 구미교회들의 부러움을 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정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았다. 교회의 성장에 비해서 사회적인 신인도가 너무나 낮은 것이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들이 그 반대로 지방색과 교파주의 교단주의 또한 세속정치와의 야합으로 얼룩져 왔기 때문이다. 100여 개가 넘는 장로교단이 그렇고 난립되어진 신학교가 그렇다. 교회는 항상 특수한 시대적 상황 속에 존재해왔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신학작업은 신학의 봉사적 성격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왜냐면 신학의 존재목적이 신학 그 자체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 가운데 처해있는 교회를 섬기는 일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말씀은 제쳐두고 한국인의 심성 속에 있는 샤머니즘적 기복주의를 발동시켜 신비주의를 양산했다는 것이요, 둘째는 지성 우월주의와 신인 협동적 알미니안적 양태를 만들어 내었다는 것이다. 감성적이고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목회적 경향들이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는데 특히 기도원 운동이나 신비주의 운동이 한국교회의 둔세주의에 편승하여 교회의 균형적인 신앙성장을 저해한 것이 아닌가 한다. 한국교회는 “오직 믿음”을 “오직 신념”으로 잘못 오해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는 “적극적 사고방식”이지 믿음은 아닌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믿되 기록되어진 말씀 안에서 해야한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며, 주변의 것보다는 내부의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21세기에 관한 진단은 많고, 한국 교회도 40-50년 후가 되면 유럽 교회와 같이 쇠퇴하게 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미래를 진단하지만, 아무런 처방 없이 쇠퇴론만을 이야기 해서는 안된다. 세상에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변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며, 그 변화는 우리들의 삶의 전 영역에 미치고 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21세기는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나 세상에 살고 있다. (“We ar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¹⁾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밖에서 따로 떨어져 살 수 없다. 세상의 변화는 교회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변화는 신앙의 방법과 세계관과 가치관

을 많은 부분 바꾸어 놓고 있다. 목회자는 변치 않는 성경의 복음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해 가는 세상에 증거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목회자가 무서운 속도로 변하는 세상을 바로 읽지 못한다면 시대의 낙오자가 되거나, 그 시대에 풍속에 빠져서 무력한 종교 지도자로 전락하기 쉽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시대의 징조를 바로 알아 깨어 있어서 오는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자위하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시대적 변화에 대안 없이 자폭할지도 모른다.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그렇지만 미래의 세계와 한국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인가를 예측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역사는 워낙 돌발적인 사건, 사고가 많기에 역사의 방향이 어떻게 전개될는지 단적으로 결론 짓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해도 대안적인 미래를 제시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에 이바지하므로 미래의 연구²⁾는 불완전하다고 해도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처럼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과학 기술 적인 변화가 가속화되고,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기대와 불안이 교차되고 있는 시대의 변화에 추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국가나 민족은 세계사의 흐름에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는 보다 다양하고 다변화될 다음 세기에 교회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교권주의와 교파의 틀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신자들 개개인의 신앙양심과 개교회의 독립적 자치권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직의 융통성과 유연함을 잘살린다면 우리는 한국교회의 장점중의 하나인 절대적인 말씀중심의 신앙과 양심중심의 신앙을 보태어 더 발전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21세기를 대비하며 효율적인 교회경영에 대한 연구는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하겠다.

1). H. VanTil, *The Calvinistic Conception of Culture* (New York: Baker Book House, 1992), 1.

2). 세계각국은 1960년대부터 정부 주도로 미래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Global', 영국의 'Britain in 2010', 일본의 총리 직속의 '21세기를 바라보면서 일본의 바람직한 사회를 생각하는 간담회' 보고서, 대만의 'Taiwan' 등이 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 직속으로 1989년부터 21세기 위원회가 조직되어 한국의 현실을 진단하고 「21세기를 향한 우리의 과제」(1991년)라는 책을 간행한 바 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연구보고서와 자료가 있으나 필자는 주로 21세기 위원회 지음, 「미래전망 2020년의 한국과 세계」(1993)와 그룹 소프트웨어 지음, 「10년 앞을 내다보자」(1992) 등을 주로 참고했다.

제1장 한국교회의 발자취

1. 한국 교회의 성장 요인

한국 교회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10년마다 숫 적 배가를 이룰 만큼 급성장 한 교회이다. 이러한 성장은 세계 교회에서 그 유례를 볼 수 없는 한국 교회만이 자랑이다. 1992년 8월 [뉴욕 타임즈]의 발표에 의하면 세계 50대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가 22개가 있다고 하였다.³⁾ 어쨌든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의 거의 반수에 가까운 많은 교회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 교회는 서구의 교회나 다른 대륙의 교회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대형이며, 지속적으로 대형화 추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한국 교회 성장은 여러 가지 개별적 성장의 요인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이성희 목사는 대략 열두 가지로 한국교회의 성장요인을 정리해준다.⁴⁾

1) 목회자의 대가 지불

많은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은 한국 교회의 성장 요인으로 목회자들의 헌신적인 수고를 든다.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은 다른 나라의 목회자들에 비하여 엄청난 양의 목회적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교회 성장도 목회자들이 목회에 많은 대가를 지불한 만큼 그 결과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목회를 위하여 소모하다 보니 갖가지 역기능도 이에 못지않게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중의 하나가 목회자의 소모가 재충전보다 월등히 많다는 사실이다.

2) 교회의 구조적 성격

한국 교회 구조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구역 조직과 심방이라는 목회구조일 것이다. 이러한 구조와 조직은 한국 교회 목회의 양식일 뿐 아니라 한국 교회 성장의 중요한

3) 이성희, 「미래목회 대예언」(서울: 규장문화사, 1998), pp22-34.

4) 이성희는 연대철학과졸업, 장로회신대원졸업 미국Fuller(신학석사, 목회학박사). 미국 샌프란시스코신학 졸업(신학박사) 현 서울 연동교회 담임목사, 장신대학 교회행정학교수로서 미래목회 대 예언이라는 글을 썼다. 이성희, 「미래목회 대예언」(서울: 규장문화사, 1998), pp22-34.

요인이 되었다. 구역조직이란 교회 조직의 지역화이며 동시에 블록화로서 연대감을 증대시키며 신입교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한다.

3) 교회 성장 이론의 확대

한국 교회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할 무렵 한국 교회를 강타한 미국 홀러학파의 교회성장이론은 한국 교회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을 뿐 아니라 교회성장이론을 만든 홀러학파의 가장 확실한 성장 표본이 되었다. 풀러학파의 교회성장론은 미국의 대표적 대형교단인 남침례교회를 모델로 하여 미국의 토양에서의 교회성장이론을 정립한 것이었는데 이러한 이론을 한국 교회는 한국의 토양에 직접 대입하여 한국적 교회성장이론과 실천을 구축한 것이다.

4) 사회 정치적 요인

한국 교회가 1960년대 이후 1980년 중반까지 급성장한 요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사회 정치적 상황적 요인이다. 한국 근대사에는 늘 불안과 갈등이 병행해 있었다. 이러한 불안과 갈등은 한국민으로 하여금 정치에 민감하게 하고, 사회 변화에 쉽게 불안감을 조성하게 하였다.

5) 좋은 교회, 좋은 선교사

초기 한국 교회는 좋은 교회가 좋은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였다. 이것은 한국 교회의 건전한 성장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6) 한국 성경의 전래

한국에는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들어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왔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선교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진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에서인지 한국 교회는 지금도 말씀에 대한 열정이 많다. 한국 교회는 아직도 무슨 행사를 하든 반드시 말씀과 연관시킨다. 이러한 말씀 중심의 교회생활로 교회를 활성화하였고 교회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7) 개신교 전래의 적절한 시기

한국 교회의 성장은 전래 시기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적절한 시기에 개신교가 한국 땅에 상륙한 것이다.

8) 네비우스 방법과 지역 분할

한국 개신교 전래의 초기에 네비우스는 선교방법의 원칙을 제공하였고 이 원칙은

한국 교회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네비우스의 선교 원칙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첫째, 광범위한 순회를 통한 선교사의 개인전도, 둘째, 자립선교이다. 모든 신자는 배우는 동시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된다. 셋째, 자립정치이다. 모든 신자들은 무보수의 전도사 밑에서 치리받도록 하며 여러 교회를 봉사하는 조사는 각 교회가 생활비를 분담하게 된다. 넷째, 자립보급이다. 네비우스의 원칙은 순회전도와 자립정신 그리고 성경에 대한 권위와 연구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원칙은 한국 교회가 급성장하게 하고, 자립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게 하였다.

9) 대형화와 중심 지향의 심리

한국인의 대형화 심리와 중심 지향 심리는 한국 교회 성장의 한 원인이다. 경제의 발전과 산업의 발전은 급격한 사회변동을 가져왔고 농경사회에 살던 한국인으로 하여금 산업사회로 이동하게 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도시화 현상은 가속화되고 도시의 교회들은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보였다. 더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형화 심리는 대형교회를 선호하게 함으로써 대형 교회의 교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는 교인들이 적지 않다.

10) 전통문화와의 조화

우리의 전통문화는 그리스도교와 조화되어 한국 개신교의 성장에 큰 몫을 차지하게 되었다. 농경문화는 근면을 중요한 미덕으로 한다. 농사는 근면과 성실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자연은 수고한 만큼 인간에게 결실을 공급한다는 자연의 관계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와 같은 전통문화는 그리스도교의 전래와 더불어 접목하는데 이러한 전통문화와의 조화는 한국 교회 성장의 중요한 요인인 새벽기도라는 한 특징을 형성하게 하였다.

11) 전통신앙과의 조화

우리의 전통신앙인 무당종교는 무속신앙을 그 기초로 하고 있다. 무당종교는 한국 교회의 대형화 정서에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전통종교이다. 왜냐하면 무당종교의 제일의 명제는 "굿판은 클수록 좋다"는 것인데 이런 무당종교적 정서를 가진 교인들은 자연히 큰 교회를 선호하고, 대형교회의 예배를 선호하게 된다. 이른 아침의 정성을 강조하던 무속은 경건한 예배 형태나 새벽기도를 강조하게 되었으며, 특히 산에 대한 정성을 신앙과 접목했다. 이러한 신앙은 한국 교회로 하여금 산기도에 열중하

게 하였고 기도원 운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12) 한국인의 성품론과 교회 성장

한국인의 성품은 고요하고 평화를 사랑하면서도 상당히 강인한 면이 있다. 작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강인한 성품 때문에 단시일 내에 세계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출 수 있었으며, 신앙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로 단시일 내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한 교회가 되었다. 이러한 강인한 성품 때문에 짧은 개신교 역사 가운데서도 순교자가 많이 배출되었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품게 되었으며, 신속한 교회 성장을 가져오는 직접적 요인이 되었다.

2. 한국 교회의 좋은 점

1) 개혁주의적 토양

한국의 장로 교회는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 위에 세워진 교회이다. 한국에 복음을 전해 준 미국의 알렌과 언더우드, 마포 삼열 박사 등의 선교사들은 한국 교회를 개혁주의적 사상으로 양육했다. 개혁주의 신앙이라 함은 [완전히 개혁된 신앙],[전면적 개혁],[총체적 신학 활동]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모토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으로 하는 것이다.⁵⁾ 한국에서는 개혁주의적 신학과 말씀이 권위있게 자리잡았으며, 이는 근세 교회사를 살펴볼 때 참으로 복된 일이라 할 수 있다.⁶⁾

한국 교회 성장의 원인들로 분석되는 1907년의 부흥 운동도 평양신학교 출신의 길선주 목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신사참배 반대로 인한 순교의 피를 가장 많이 흘린 교파도 장로교이다. 또한 성경 번역에 있어서도 한글 개역 성경은 개혁주의적 신학을 바탕으로 쓰여졌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⁷⁾

5). 정성구. “한국 장로교의 자화상과 미래 (개혁주의 입장에서 비판과 대안)” 『신학지남』. 제 58권 4집. 1991년/ 겨울.

6). 개혁주의란 말은 종교 개혁 후기에 발전된 교파나 교회 등을 가리키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은 1560년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의 토양 위에서 세워진 불란서 개혁교회, 독일 또는 독일어를 쓰는 스위스 개혁 교회, 화란 개혁 교회,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장로 교회는 모두 칼빈주의 사상을 기초로 한 것들이다. 정성구.op.cit.

한국 교회가 이제 겨우 100년 남짓한 짧은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달성한 교회 성장의 모습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다. 더욱이 기독교의 본고장이었던 서구 사회에서 교회가 점점 사양길을 걷고 있고 기독교의 영향이 감퇴되어 가고 있는 시대적 추세를 감안해 본다면 한국 교회의 양적 성장은 세계 교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는 일이었고, 한편 한국 교회로서는 자랑할 만한 일이라 하겠다.⁸⁾

2) 말씀 중심의 신앙

개신교의 경우 1955년에 교인이 75만으로 전체 인구의 3.4% 밖에 안되었으나 30년이 지난 1895년에는 그 수가 780만에 이르러 열 배가 넘는 교인이 확보되었고 전체 인구의 18%에 달하게 되었던 것이다.⁹⁾ 이런 모든 일은 마포 삼열 박사의 말대로 성령의 역사이다. “해를 거듭하여 우리는 그저 이 백성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일은 성령께서 하셨습니다.”¹⁰⁾ 그러나 한국 교회가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 위에 세워졌고,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절대 주권을 높이는 개혁 교회였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 장로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어떠한 부흥도 있을 수 없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은 목사님을 존경했고 자녀들을 목회자로 서원하는 일이 많았다. 이들은 한국 교회의 일꾼으로서 커다란 자원이 된다.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교회 성장의 방법만을 추구하는 일이 있어서 자못 염려스럽다.

3) 기도 중심의 신앙

“어째서 한국 교회가 이토록 급속히 커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7). 이만열. 한국 기독교사 특강. 성경읽기사. 1987.

8).참고. 라일 살러. “미국은 한국 교회의 성장을 배워야 한다.” 전상의 역. 『목회와 신학』 1992.10. 김인택. “맥가브런의 이론에 비추어 본 한국 교회 성장.” 장로회 신학대학 대학원 졸업 논문, 1989. 그 논문에 소개된 마삼락 박사의 통계(도표 4)에 의하면 1794년에 4,000명이었던 신자(카톨릭)이 1978년에 1,189,863(카톨릭)되는 사이에 개신교는 1900년에 42,441에서 1978년에 3,758,930명이 되었다.

9). 이원교. “한국 교회 성장 운동의 재평가” 『목회와 신학』. 1990.2.

10). 김인택, 주 114. 재인용.

대개의 한국 교인들은 기도와 금식을 첫째로 꼽을 것이다. 어떤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좌우되는 것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또 모든 것이 인간에 의해 좌우되는 것처럼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CCC 대표 김준곤 박사는 “역사를 훑어볼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은밀한 기도 뒤에 있다.”고 말했다. 한국 교인들은 이른 아침에 기도할 뿐더러 수요일 저녁 기도예배와 금요 철야 기도회에 많이 참석한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날 동안 기도하기 위해 “기도원”에 가는데, 이때 금식하는 경우가 많다.¹¹⁾

서구적 과학기술에 물든 서구 크리스찬들은 자주 기도를 무시한다. 그러나 충분한 물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사역하는 아시아의 많은 크리스찬들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과 복 주심을 위해 필사적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과 헌신을 기뻐 받으신다.¹²⁾

11). 나일선. “한국 교회 성장의 비결들” 『목회와 신학』.1990.2.

12). *ibid.*

제2장 개혁주의 입장에서 바라본 한국교회의 문제점

1. 한국 교회의 문제점

1) 교회 성장학이 제기한 한국 교회의 문제점.

한국 교회의 성장은 존 본이 쓴 [세계의 최대의 이십대 교회]에 소개된 이십 교회 중 한국의 교회가 다섯개나 포함되어 있다는 것으로도 증명이 된다. 한국교회는 가장 크게 성장한 지역 교회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자 그대로 교회성장에 성공한 나라임을 입증해주고 있다.¹³⁾

그러나 현 한국 교회 내부에는 60년대 말기부터 8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었던 교회 성장 현상이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기로 접어들면서 점점 둔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공통적인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93년판 "기독교 대연감"통계에 따르면 '91년도 한국 교회 신도수는 12,571,000명인데 비해 '92년도에는 12,652,000명으로 한해 동안 겨우 8천여명이 불어난 정도이다. 한국 교회는 성장을 멈추고 있거나 아주 저조한 성장(0.6%)을 하고 있음을 틀림없다.¹⁴⁾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혹시 교회 성장학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개혁주의적 방안이 나와야 하는 이유를 이 부분에서 확인하고자 한다.

2) 교회성장운동이 제기한 문제들

교회 성장운동은 1955년 도날드 맥가브란이 [하나님의 다리](The Bridge of God)라는 책을 발간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선교 초기부터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아온 한국교회가 교회성장운동의 영향을 받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한국의 교회 성장 운동을 주도한 교회는 광림 교회이며 많은 학자들도 이를 지지하고, 한국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를 교회 성장에 대한 관심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김정곤씨는 "교회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들"¹⁵⁾이라는 글에서

13). 방선기. "교회 성장 운동이란 무엇인가" 『목회와 신학』 1990.2. p.40.

14). 김정곤. "교회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 『월간 고신』.1993.8.

15). 김정곤. op.cit.

한국 교회의 문제점은 1.교회 성장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부족 2. 제도와 조직의 잘못 이라고 본다. 상술하면 성장에 대한 의식과 의욕의 결핍, 현실안주와 자기 만족, 이것이 교회 성장의 큰 걸림돌이라고 한다. 또한 침례교에 비해 장로교의 제도와 조직이 자기 중심주의, 자기 절대주의에 빠지게 되면 교회에 유익보다도 해가 더 클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전통이라는 이유로 폐쇄해놓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는다고 분석한다.

또한, 이요한씨는 “한국 교회는 왜 성장 둔화의 참체에 부딪혔는가”¹⁶⁾라는 글에서 종교적 폐쇄주의 즉 교회 건축에만 힘을 쓰는 집단적 이기주의로 소외된 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았으며 교회성장의 자원들이 투자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종교적 분리주의, 물질에 대한 이중적 태도와 교회 지도자의 비윤리적 태도를 지적했다. 또한 신학적 혼돈과 비성숙성, 안일과 영적 순수성 상실로 나타나는 교회 지도력의 후퇴, 십자가가 제외된 설교내용, 선교구조의 취약성, 성령운동의 질적 저하를 이유로 들고 있다.

교회 성장학에서는 교회 성장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내적 성장, 양적 성장, 개척 성장, 교량적 성장이 그것이다.¹⁷⁾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교회성장의 촉진 원리 10가지를 제시한다. 제 1원리는 목회자의 지도력이 성장을 좌우한다. 제 2원리는 영적인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교회가 성장한다. 제 3원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기초한 교회가 성장한다. 제 4원리는 평신도 지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회가 성장한다. 제 5원리는 뚜렷한 목표를 갖는 교회가 성장한다. 제 6원리는 선교 전략을 가진 교회가 성장한다. 제 7원리는 좋은 시설을 갖춘 교회가 성장한다. 제 8 원리는 계층별로 그룹을 조직하고 확대하는 교회가 성장한다. 제 9원리는 사회적인 관심을 갖는 교회가 성장한다. 제 10원리는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는 교회가 성장한다.는 이상 10가지이다.¹⁸⁾

16). 이요한.op.cit.

17).내적 성장을 질적 성장을 의미하며, 양적 성장은 외적 성장을 의미한다. 팽창성장이라고도 한다. 개척 성장은 확장 성장이라고도 하며 새로운 개척교회를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교량적 성장을 선교 성장을 의미한다. 김인택,op.cit.

18). 김해철. “교회 성장의 신학” 『목회신학』 1991,6.

2. 교회 성장 운동에 대한 개혁주의적 평가

이러한 교회 성장의 신학은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주었다. 긍정적인 영향이라함은 한국 교회로 하여금 교회 부흥과 성장의 열심을 불러일으키고 서로 경쟁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회 성장에 사력을 다해서 실제로 많은 부흥을 일으킨 점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요소도 많다. 이른바 거룩한 실용주의가 보편화되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게 되었고 적극적 사고방식만 가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사상이 팽배해졌다. 한편 벨카일박사의 지적처럼 교회성장학파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사이의 관계성이 모호하고 그들의 논리로 볼 때 큰 교회만이 교회이고 작은 교회는 마치 교회축에도 못드는 듯한 인식이 늘어났다. 이런 대내외적인 요인들은 한국교회의 물량주의를 부채질하게 되었고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뛰어넘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¹⁹⁾

또한 교회의 물량적이고 외형적인 발전에 버금가는 교회의 자기 성숙이 부족하다.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성숙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는 교회 성장의 모델은 될 수 있어도, 교회 성숙의 모델은 될 수 없다.²⁰⁾

또한 한국 교회의 윤리적 타락, 탈현세적, 기복주의적 신앙의 형태가 들어서게 된 것도 교회 성장 운동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 성장 드라이브 형의 목회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을 배태한 것이다. 성도들의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 신앙을 충족시켜 줌으로 성장하기를 원했던 교회들도 많다. ²¹⁾

3. 개혁주의 입장에서 본 한국 교회의 문제점

1) 인본주의

일찍이 벨카워 박사는 1947년 그의 한 연설문에서 20세기의 최대의 문제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라고 했다. 이 인본주의 사상은 신학은 말할 것도 없고 철학, 문학, 교

19). 정성구, op.cit.

20). ibid.

21). ibid.

육, 정치, 경제 등 삶의 전 영역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인본주의 사상의 아들들인 세속주의, 무신론주의, 진화론 사상을 신학함의 틀로 받아들인 많은 신학자들은 개혁주의의 창조, 타락, 구속의 질서를 생성, 투쟁, 해방의 다른 질서로 바꾸어버렸다.²²⁾

인본주의의 가장 큰 피해는 자유주의 신학과 해방신학이다. 블로흐의 영향을 받아 인간은 자유로우며 인간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인간은 계급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성경의 여러 말씀을 아전 인수 격으로 해석하며 예수는 바로 혁명가였고 혁명의 설교를 했다. 또한 마르쿠제의 영향을 받아 젊은이들이 혁명과 무정부활동의 수단으로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을 가진 실업자 낙제생 특히 젊은 학생들의 혁명적 열기를 가지고 얼마든지 이상적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낙관주의자이며 철저한 인본주의자였다.

그런데 한국교회에도 이 물결이 들어와서 7,80년대 보수와 진보의 양 극단을 만들었다. 진보 진영에서는 민중 신학으로 치달았다. 인간의 힘을 과신한 것이다. 그러나 보수 진영은 진보의 민중 신학을 두려워한 나머지 개혁주의 내의 소중한 전통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이라는 모토를 놓쳐버린 채 계도화되었다. 따라서 인본주의와 그로 말미암은 자유주의 신학과 해방 신학이 한국 교회에 끼친 피해는 상당하다.

우리 개혁주의자들의 목회철학과 신앙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다. 인간 중심적인 목회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목회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인간과 인간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선행하는 목회가 되어서는 안된다. 인본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권징도 될 수 있는 한 하지 않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프로그램 위주의 부흥을 원하게 되는 것이다.

인본주의적인 것의 두번째 피해는 개교회주의이다. 나의 교회라는 인식이 팽배해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하는 데 자기 교회라는 인식만 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개교회주의는 신도 증가에 크게 기여했지만, 교인 수 확보 자체가 교회의 최종적 목표가 되어 수단과 목적이 뒤바뀔 수가 있다. 또한 개교회 주의는 교회의 재력, 인력의 향상을 가져오지만 능력이 없는 교회(예를 들면 농촌 교회나 도

22). 정성구, op.cit. p.115.

시 빈민 지역 교회)와의 발전 불균형을 초래하여 교회의 빈부 격차를 심화시킬 수도 있다. 또한 교회 연합 사업이 부진하게 되고 개척교회 설립이나 해외 선교도 개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져 교단적인 혹은 교회 연합적인 사업은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다. 23)

보수적인 교회나 진보적인 교회나 모두 개교회적인 모습을 탈피하지 못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로 되어야 한다. 개교회적인 부흥이 지상 명제화되기 때문에 젊은 목회자들에게는 대형교회가 목표가 되어있고 여기에는 나도 스타가 되고 싶다는 영웅심리가 작용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도 출세해야겠다는 심리가 앞지르고 있다. 교인이 많아야 성공한 목사이며 헌금 많아야 유능한 목사로 인정되고 있다. 3-40대 목회자들은 자신의 자질을 위한 공부와 영성의 개발은 아주 체쳐놓고 그저 교회를 어떻게 대형화하여 회장행세를 하게 되느냐에 관심을 쏟는 경우가 많다. 어느 목사가 몇 년 동안에 수만 명을 모아 예배를 드린다는데 나는 왜 그렇게 못하겠는가 하는 의식이 요사이 젊은 교역자들 사이에 팽배해있다. 24)

하나님을 도외시한 이런 인본주의에서 배태된 즉 민중신학-해방신학의 문제와 개교회 주의의 문제는 물량주의로 나갈 수 밖에 없다.

2) 물량주의

물량주의는 숫적 성장 위주의 목회는 물론 배금주의적인 신앙형태와 큰 것이 좋다는 교회 프로그램의 문제를 포함한다. 이종운 목사님은 한 글에서 “한국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가장 큰 힘은 돈이다.”²⁵⁾라고 말했다.

교회 성장을 기업 투자로 간주한다. 교회 건물 크게 짓고, 기도원 크게 짓고, 교육관 크게 짓고, 교회 묘지 크게 만들고, 교회마다 성가대 육성에 큰 투자를 하고 있다. 교회의 외부적 치장에 크게 투자한다. 목사는 기업회장, 수석 부목사는 사장, 장로들은 임원이 된다. 대부분의 교회가 좋은 지휘자, 반주자, 성악전공인들을 채용하고 성가대 예산은 교회 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에 돈

23). 이원규, 『한국교회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 성서 연구사, 1992.

24). 김영한, op.cit. p.20.

25). 이 종운, “한국 교회 성장과 그 문제점”, 『한국 교회의 종교 개혁』. 서울 : 엠마오, 1988.

을 받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봉사인가? 청년부 대학부 등에는 투자하지 않고 그냥 굴러가도록 두고 있는 교회도 적지 않다.²⁶⁾

헌금 액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웃 교회 성도를 끌어들이야 하며 교회 안에 돈 가진 자에 대한 특혜와 교회의 상류 사회화 현상은 날이 갈수록 교회가 이겨 나가기 힘들만큼 교회의 목을 죄고 있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교역자들의 모임은 으레히 교회보다는 고급 호텔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위층 지도자들을 초대 또는 방문하여 권력에 아부 내지는 결탁하는 모습은 한국 교회가 안팎으로 몰아닥치는 꺾박앞에 얼마나 무력한가를 보여주는 좋은 실례가 되기도 한다. ²⁷⁾

더구나 교회 성장학에 의하면 제 7원리는 좋은 시설을 갖춘 교회가 성장한다. 따라서 슈퍼마켓이나 은행은 누구나 찾기 쉽고 가기 쉬운 곳에 위치하듯 교회의 위치도 누구나 쉽게 찾아 올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하며, 누구나 출석하면 자연스럽게 기도와 찬송이 우러나올 수 있도록 예술적인 면이 가미된 건축 설계도 필요하며, 주차장의 넓은 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며, 목회는 전 도시를 상대로 해서 하는 목회이기에 버스를 이용한 신속한 기동력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내용²⁸⁾은 목회자들로 하여금 그런 요구 조건을 만족시켜줄 만한 물량이 있는 교회를 선호하게 하였다. 사실 물량주의는 교회가 무슨 수단과 방법을 쓰든지 부흥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만들게 하였다.²⁹⁾

교회가 인본주의로 물들고, 물량화에 집착해있다면 그들은 복음으로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오히려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된다.

3) 세속주의

앞에서 손봉호 교수가 지적했듯이 한국 교회의 비윤리성이 바로 세속주의에 물들었다는 증거이다. 최갑종 교수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늘 한국 교회, 특히 개신교회와 신자들의 비윤리화 문제는 한국 교회의 장래 존폐를 위협할 만큼 심각한 것이다.”³⁰⁾ 교회에서 도덕성의 문제는 교회의 존재성을 논할 수 있는 관건이 된다. 도덕

26). 김영한, op. cit. p. 21.

27). 이종윤, op.cit.

28). 김해철, op.cit.

29). 정성구, op.cit. p.112.

성이 실추되었거나 도덕성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교회란 사실상 생존불가능한 집단인 것이다.³¹⁾

이러한 세속주의는 목회자들의 지도력 실추를 가져왔으며 성도들의 성숙 이원론 사상을 유발했다. 한국 사회가 이해하기에는 한국 교회 교인들은 종교적인 신념의 추진력을 가지고 물질의 증대를 꾀하는 경제 성공주의자로 이해하였고, 비교적 지적 수준이 낮은 사회적 집단에서는 경외로운 눈으로 보았지만, 한국 사회의 중산층은 이러한 태도를 부정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였다.³²⁾ 특별히 한국 경제의 비정상적인 현상, 말하자면 부동산 투기를 통한 어이없는 부의 축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생활에서 기독교인의 물질적 성공을 향한 도전은 자연히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였다. 당시 사회의 지식층은 부동산 투기자 가운데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인이 제일 많다고 지적하기 시작함을 깊이 음미해볼 과제였었다.

교회 지도자들의 박사학위 취득에 대한 열정, 80년대 중반기를 지나면서 불거져 나오는 교회 지도자들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들, 기독교는 값싼 종교적 안일주의 또는 상대방의 입장과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는 비윤리적 종교로 이해케 하는까지 발전케 되었다.³³⁾

30). 최갑중. “주후 1세기로 돌아가 예수님과 바울을 만나자” 『월간 고신』. 1994, 10.

31). 한승홍. “교회 성장과 교회 교육” 『장신논단』. 장로회 신학대학 출판부.

32). 이요한, op.cit.

33). 이요한, ibid.

제3장 새로운 패러다임과 한국교회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다. 로버트 콜먼은 빌헬의 책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³⁴⁾ “불행하게도 사도적인 열정을 가진 목회지도자들이 부족한 형편이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 목회를 해야 할 특권적 위치에 있는 성직자들 자신이 오히려 목적의 부재성과 좌절감 속에서 표류하고 있다” 즉 목회자의 숫자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무가치 한 일들만 하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 교인을 늘리고, 그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지상명령을 완성하는 분과는 아무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시는데 우리는 그의 사랑에 뜨겁게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힘은 오직 복음에 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1. 농경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우리 나라에서는 오랜 농경사회의 관습과 문화에서 1970년대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공업시책은 산업사회의 관습과 문화를 새롭게 발전해 나가게 했고, 이러한 생활방식의 변화는 생활뿐 아니라 사고에도 변혁을 일으켜 왔다. 수천 년을 이어오던 생활리듬이 전화됨으로써 야기된 사회상의 변화는 갈수록 그 속도가 빨라지며 세대간의 갈등, 새로운 사회계급의 출현 등 신 사고와 신문화를 급속하게 만들어왔다. 최근에 와서 정부의 과학시책, 특히 정보통신의 초고속 발달은 이러한 갈등과 문제를 가속화할 것이다. 미래학자이며 세계 미래학회장이었던 코니쉬(Edward Cornish)는 미래를 향한 변화는 과거의 산업혁명과 종교개혁을 합친 것의 10배 규모로 한 세대 안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는 격동적 변화의 시기이며, 변화의 속도와 양이 과거에는 한 분야의 기술혁신이 일어날 만큼 대변화의 시기이다. 이성희

34) 빌헬 「목회자가 제자삼아야 교회가 산다」, 박경환역 (서울: 요단, 1994). p. 11.

목사는 이러한 대변화는 사회의 모든 지층을 흔들게 될 것이고 가장 저변에서부터 권력의 상층에까지 대변혁이 이루어질 것이다.³⁵⁾고 하였다. 토폴러는 이것을 '권력 이동'(power shift)이라는 말로 표현하였는데 이것은 권력이라는 단순한 용어가 가진 의미를 넘어서서 권력의 본질이 가진 심층적 변화를 의미하고 있다. 미래 사회에 대변혁이란 인간의 심리적 변화에서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삶에로의 총체적 이동을 의미한다. 미래 충격에 대한 대처방안은 이와 같이 낙관론적인 태도와 비관론적인 태도로 나뉘게 되는데 그만큼 미래의 변화는 충격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³⁶⁾ 미래학의 마샬 맥루한 교수가 그의 저서 [매체의 이해](Understanding Media)에서 '지구촌'(global villag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지구촌이라는 말은 이미 상식화한 용어가 되었고 여기에서 지구화의 개념이 발생하게 되었다.³⁷⁾ 더구나 1955년 1월 1일에 세계무역기구(WTO)체제가 출범함으로써 일반협정 체제가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지구화 시대의 개막을 고하게 되었다. 세계무역기구 체제는 지금까지의 공산품뿐 아니라 농산물, 교육, 서비스 분야까지 교역을 확대하여 세계 경제는 이제 하나의 시장으로 국경 없는 지구공동체가 되었다. 세계는 점점 자국이기주의와 민족분리주의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분열과 통합의 이중구조, 이데올로기의 종식과 세계방향성의 상실이 우리가 목회 해야 할 21세기라는 미래사회이다.

2. 미래교회의 위치

교회는 위와 같은 미래 사회가 갖고 있는 공허함과 자기기만에 대한 의미 있는 해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조직체이다. 한국 사회의 특성과 특히 교회성장의 대명제로 세워진 성장 형태로 만들어진 목회 구조가 지금까지 교회를 구조화하였다. 그러나 미래 목회자들은, 미래 사회의 구조적 변화는 현재의 목회 구조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먼저 눈을 떠야 한다고 한다. 교회는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대하여 대처해야 하는 새로운 선교적 과제를 안게 되었다. 새로워지는 현대의 문화는 세계

35) 이성희, op, cit. p. 21.

36) Ibid.

37) Ibid.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래 세계는 전통적인 교회의 형태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만족을 주지 못할 것이다. 최근의 한국 교회는 젊은이들을 잃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신세대들의 사고 전환으로 교회는 더 이상 그들의 흥미의 대상이 아니며 케케묵은 구시대의 유물로 전락할 위기에 있다. 그들은 재미있는 프로그램, 새롭고 낙관적인 예배 분위기, 넓은 주차공간, 부담감이 없는 교회생활을 원하고 있다. 이런 '잃어버린 세대'를 얻기 위하여 교회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터인데, 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서방의 여러 교회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미래 사회를 위해 준비하고 21세기 목회 모범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미국의 성공회는 1990년대 초기부터 미래 교회를 위한 교구 회의를 열고 21세기 목회를 꾸준히 연구하여 왔다. 미국의 교회성장학자 칼 조지는 그의 저서에 미래교회를 메타 교회라고 정의하였다. 접두어 메타는 헬라어의 '변화'를 의미하는 말로서, 메타 교회란 전환기의 교회, 돌아서는 교회, 혹은 되어 가는 교회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메타 교회는 대형교회라는 의미의 메가교회와는 전혀 다르다. 차세대의 교회는 대형교회라는 의미보다 변하는 교회라는 의미의 교회가 되어야 하고 필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메타교회의 목회자는 교회의 기본적인 영성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미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회의 구조적 갱신을 안다. 메타 교회는 대형교회가 아니라 변화를 모색하는 모든 미래 구조를 지향하는 교회이다. 메타 교회의 사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인들을 어떻게 연관성을 가지게 할까라는 새로운 환상을 보여 주는 일을 강조한다. 즉 메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계획을 이해하기 위하여 사용된 용어이다. 특별히 메타 교회가 유의해야 할 것은, 메타 교회의 강조 점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관계와 원리라는 사실이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배우는 것이다.

3. 21세기 교회가 버려서는 안될 것들

21세기에 이르러서 패러다임이 바뀌고 교회의 구조도 상당 부분 바뀌리 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 가운데서도 바꾸지 않아야 할 것들은 분명히 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요, 터이며, 방파제이다(딤후3:15). 교역자들이 타락하는 만일
 의 경우에도 교회는 교회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고 보호할 사명이 있다. 모든 규례들
 은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
 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하였다.(고전 11:23) 여기에 “너희”는 목사 또는 장로가
 아니라 성도 전체를 가리킨다. 성도들 전체는 교회의 규례들을 지켜야 할 책임을 가
 지고 있다.³⁸⁾ 그러므로 개 교회들은 성경의 원리원칙 안에서 각각의 규례와 규칙을
 제정하고 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물론 거대교단에는 헌법이 있고 규칙들
 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개교회의 독립성을 침범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
 은 종교개혁자들이나 현대의 신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각각의 개 교회들은 교회의 규례들을 만들고 또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 개교회의 고
 유한 권한들을 보존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개 교회
 는 자신들 교회의 내부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권리가 있다. 개 교회내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개 교회 자체가 해결하기 곤란할 때는 상회인 노회나 총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전6:1-15).³⁹⁾ 여기에 개교회의 행정의 자리가 있는 것
 이다. 즉 개 교회는 교회에 고유하게 주어진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개 교회가 자율
 적으로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시행하며 운영할 권한이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21
 세기 교회는 현재 보다 더 자율적이고 자치적으로 변해 갈 것이다.

신약의 모든 교회정치는 개 교회들에만 적용시켰다고 할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회의 역할이 크다. 교역자 양성을 위하여 신학교를 운영하
 거나, 해외 선교사의 파송, 타 교단들과의 연합, 신앙적 교리정립, 성경적 연합운동
 또는 집회, 협동적 구제 등은 개 교회들로 구성된 노회나 총회 같은 상회의 역할이
 지대 하다.⁴⁰⁾ 그러므로 교회행정은 개교회의 유익을 우선으로 하되 더큰 유익을 위
 해서는 상회와의 관계를 무시해서도 안된다는 원칙은 고수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므로 공동체적 책

38). 조영엽, 「교회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p. 79.

39). Ibid.

40) Ibid.

임과 특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다.⁴¹⁾ 특히 다가오는 21세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단과 종교적 다원주의에 의한 사상적 공격이 교회에 가해져 올 것이므로 교회간의 유대와 연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속적 정보가 난무하는 인터넷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선포하여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선용(善川)할 수 있는 대책을 공동으로 세워야 할 것이다.

조영업은 다음과 같이 논한다. 우주적 교회는 모든 세대에 구속함을 받은 모든 참된 성도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개 교회들은 우주적, 무형적, 신령한 교회들을 반영하는 참된 유형적인 교회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 되며, 성례가 바로 시행되며, 권징이 바로 시행되어야 한다. 신자들이 개 교회에 가입하지 않아도 우주적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가? 오늘날 교회들의 큰 문제들 중 하나는 개 교회 중심, 교과중심이 강하여 전 세계에 편만해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우주적 교회의 성질에 관하여 망각하고 개 교회만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개교회 중심주의는 교회를 물량주의로 하락시키며, 세속화시키며, 심지어는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들, 신자들과의 신령한 연합도 저해시키며, 개교회로서 수행할 수 없는 보다 더 큰 주님의 사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중요 요인들이 된다. 신자들에게 신앙상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교회를 보호해야 하며, 위선자들, 불신양자들이 교회에 침입해 오면 추방해야 할 것이다.(마 18:15-18; 고전 5:1-13)⁴²⁾

4. 세계화 지방화 시대의 한국 교회

지금 한국 교회가 처한 긴박한 상황은 세계화라는 거대한 물결이 온통 사회를 뒤덮고 있는 변혁의 시대이다. 주위에서는 교회가 변해야 한다고 직. 간접의 압력을 가해 오고 있으며, 교회는 분명히 개혁되어야 한다는 대 명제에 동의하면서도 개혁의 방향과 방법에 일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세계화란 어떤 의미에서 위기이다.

41) Ibid., 81.

42) Ibid., 92.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카이로스를 위험한 시간이 아니라 기회의 시간으로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세계화를 하나님이 주신 카이로스로서 받아들이기 위하여 먼저 세계화의 성경적 의미를 살펴보아야 한다.⁴³⁾

세계화의 명령은 하나님의 선포이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조상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신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세계화 선포는 아브라함 개인의 세계화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세계화 선포이며, 나아가서 현세적 세계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내세적 세계화를 포함한 선포이다. 이러한 연유로 성경이 말하는 미래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는 것임을 볼 수 있다. 구약은 전체가 세계화의 선언이다. 세계화한 인물이 히브리 인물이었다고 하나님의 세계화한 인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 것이다.

신약에서 그리스도는 인간적 배경에 의하면 유대인이었으나 유대인이라는 동질성을 벗어나서 세계인으로서 인정받으신 것이다. 이런 세계인으로서의 배경으로 그리스도께서 세계화를 선언하신 것은 당연하다. 이른바 그리스도의 마지막 대 명령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성이 가장 잘 나타나 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으로 끝을 맺고 있는데 그 내용은 복음의 세계화이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계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마가복음의 대 명령은 공통적으로 복음의 세계화에 대한 강한 명령이다. 승천하시기 직전의 감람산에서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대화에서는 제자들의 유대주의에 대한 그리스도의 탈 유대주의와 세계화가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려는 때까지 유대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제자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에 회복되어야 한다는 편협한 유대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답은 제자들에게 가장 적절하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복음의 전진적 전파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나

43) 이성희op, cit., p. 46.

라 회복은 이스라엘이라는 국지적 사건이 아니라 땅 끝이라는 세계적 사건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화 선언은 사도행전을 통하여 가시화하며, 복음의 세계화가 실현됨을 증언하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은 복음의 세계화가 진행중임을 말하고 있다. 복음의 세계화는 결코 멈춤이 없이 지속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고 세계화를 향해 땅끝까지 그리고 시간 끝까지 성도행전으로 이어질 것이다.⁴⁴⁾

일반적으로 세계화를 가속화하는 세 가지 요인을 3T라고 한다. 즉 교통수단(transportation), 장거리 통신(telecommunication), 그리고 여행(tourism)을 의미한다. 이 세가지 요인 가운데 세계화를 가장 촉진하게 할 동인은 장거리 통신이다. 세계화의 세계는 지방화의 세계와 같은 세계이다. 세계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하나이면서, 동시에 하나가 아닌 모순과 패러독스 속에서 발전적인 원심운동과 구심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규모가 확대될수록 최소 경제 단위의 힘은 더 강력해진다는 논제는 명백한 모순을 내포하지만 세계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틀이 되었다.

존 나이스비트는 이러한 유사한 정치적 경제적 영역의 현상을 '글로벌 패러독스(global paradox) 라고 부른다. 이러한 패러독스는 기업은 기업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분리와 통합을 반복하게 하며 새로운 부족주의를 탄생시켜 동질성의 체제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⁴⁵⁾ 사람의 생활양식은 세계적이 될수록 종족적으로 행동하게 되며, 경제 생활도 세계 경제의 규모가 확대되고 개방될수록 규모가 더 적은 중소기업들의 영역이 확대된다

5. 세계화 시대의 한국과 한국 교회

세계화 시대는 분명히 한국 교회로 하여금 상당한 변화를 강요할 것이다. 세계화

44) Ibid.

45) 칼 F. 조지, 「성장하는 미래교회 메타교회」 김원주, 명성훈 역(서울: 요단출판사, 1997), p. 22. 존 나이스비트의 1982년 베스트 셀러 “메가 트렌드”(장상용역, 고려원, 1992)에서 나온 글을 재인용.

로 가는 길목에서 우선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의 성장이 거품이 아닌지를 확실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미래라는 세계화 시대는 교회연합 운동이 주도하게 될 것이다. 분열과 경쟁의 시대가 산업사회의 특징이라면 연합과 조화가 정보사회의 새로운 특징이 될 것이다. 지난 세대에 한국 교회는 분파와 분쟁 가운데서 성장과 함께 상처를 남겼다. 교회는 사회에 대하여 배타적이었고 외면했으며, 그 결과로 사회는 교회를 외면하고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났던 것이다. 현재의 한국 교회가 젊은이를 포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의 사회성 결여이다. 더구나 교회가 가진 정통, 카톨릭, 에큐메니칼 등의 용어가 모두 보편적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교회는 보편성이 있어야 하고 차별성을 배제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 세대의 배타성을 극복하고 연합과 일치를 향해 포용성을 갖추는 것이 세계화 시대의 한국 교회의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제4장 21세기 한국교회의 전망

21세기의 문제는 결국 사람의 문제이다. 어떤 사람들이 세대를 이끌어 갈 것이냐가 관건이다. 그렇게 본다면 21세기의 주인공은 가깝게는 20대들이 곧 21세기의 초반의 주류가 될 것이며 10대들이 그들의 뒤를 이어 21세기의 중반을 이어 갈 것이다. 그러므로 미래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세대들에 대한 연구이다.

1. 신세대의 출현

인간의 미래에 대한 관심은 역사 이래로 지속되어 왔지만 근래처럼 미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적은 없다. 그만큼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증거이다. 흔히 신세대의 특징을 "PANTS(개인주의적) 신드롬"이라고 한다. 이들이 미래교회의 몫이라고 볼 때, 교회는 먼저 이들을 이해해야 한다. 첫째, 신세대들은 개인적이다. 나아가서 신세대들은 자신들의 삶을 질을 최대한 존중하고 최고의 가치로 인정한다.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서로의 삶이 침해받는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부부이면서도 각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기 갖기를 거부하고 둘만의 삶을 즐기려고 한다. 그들을 우리는 덩크(DINK: Double Income No Kids)족이라고 한다. 둘째, 신세대들은 흥미 본위이다(amusement). 이들은 한달에 100만 원의 용돈도 모자란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대학 교수도, 대학생도 부모를 살해하는 패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셋째, 신세대는 자연스러움을 좋아한다. 패션에서는 더욱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고, 모자는 반드시 바로 쓰지 않는다. 넷째, 신세대는 성별 구분이 모호하다(trans border). 남자들도 긴 머리에 귀거리, 목거리와 팔지 등을 한다. 이제는 전통적인 여성의 패션을 여성만의 것이라 하지 않고 남성들도 거리낌 없이 이용한다. 다섯째, 신세대의 또 다른 증후군은 자기 사랑이다(self loving). 신세대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친구는 없고 경쟁자만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신세대의 자기 사랑을 극대화하여 결국 냉정한 이익사회로 급진전하고 있는 것이다. 신세대라고 말하는 20대 초반의 세대를 'X세대'라 부른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이들보다 어린 10대 후반의 세대들은 X세대와의 차별을 부르짖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가 X세대라 불리기를 거부하고 'Y세대'라고 한다.⁴⁶⁾ 세대간의 나이차가 점점 좁아질 것이며 미래에 가서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2. 가속적 변화

미래 사회의 가장 뚜렷한 현상은 속도감의 변화이다. 이러한 역사 변화의 가속적 발전은 미래 충격의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다. 미래형 속도감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미래 사회는 어지러운 사회이며, 미래인과 편승하기를 꺼리고 과거형 속도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과거형 인간이 된다. 현대 대다수 사람들은 사물의 발달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산업사회가 지나고 후기 산업사회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않고 정보사회라고 한다.

이러한 일련의 유행은 인간의 관심사가 미래형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새로운 우주관이 형성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우주관의 변화와 더불어 형성되는 가장 뚜렷한 미래형 가치관은 임시성과 일회성의 발달이다. 이러한 변화는 인간의 사고와 정신 상태에 급격한 변화를 주고 있다. 인간의 사고가 일회용으로 전환되며 영속적인 정신에서 단기적인 사고로 전환된다. 기술과 생산품에 대한 영속성의 단절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와 영적 생활도 단기적이며 일회적인 상태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진지한 사람과의 사귀이 상실되고, 자신의 소유에 대한 애착심이 상실되며, 교회를 향한 태도도 변화되어 교회에 대한 소유개념이 상실되고 필요하면 아무 교회라도 간다는 식의 편의주의가 발달하게 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슈퍼마켓보다는 편의점을 애용하고 있는데 미래의 교회도 슈퍼마켓형의 교회가 아니라 편의점식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자연관의 변화는 지구의 인구 폭발과 필연적 상관관계를 가진다. 분리와 경쟁 시대인 지난 산업혁명 이후의 세계는 인구의 점진적 증가와 더불어 자연에 대한 지배가 시작되었는데 이 시기에는 자연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였다. 그러나

46) "Y세대를 잡아라" 조선일보, 1999년 3월11일자, 24면.

미래는 인구의 폭발과 더불어 인간이 자연에 조화와 공존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자연은 증가하는 인구의 의식주를 위한 수단으로 더 이상 착취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폭발하는 인구의 생존을 위하여는 오히려 보존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제5장 21세기 한국교회의 성장전략

앞의 장에서 미래 사회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미래가 그렇게 변할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미래사회는 불확실한 것이 분명하며 공허감이 증대되는 사회가 될 것이지만 이런 미래형 특성은 교회의 존재가치를 높여준다. 교회는 미래 사회에 가지는 공허함과 자기기만에 대해 의미있는 해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조직체이기 때문이다. 교회가 사회와 함께하는 존재가 될 때에 교회는 존재 의미가 있으며, 그러므로 교회는 사회에 대하여 철저하게 책임적이어야 한다.

한국 그리스도교의 제1물결은 지난 110년의 그리스도교의 전래사와 더불어 지나갔으며 대개 1950년대까지의 한국 교회의 역사를 제1의 물결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1950년대 이전에도 교회의 제2물결의 징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1959년 대한 예수교 장로회가 합동과 통합으로 나뉘면서 한국 교회의 제2물결의 시대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제2의 물결은 아직도 확산되고 있다. 제2의 물결은 물질주의와 인간 우월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경쟁, 자기보전, 소비 등을 강조하는데 이로 인한 역기능으로 개 교회주의, 목회자의 윤리 부재, 그리스도교 물질주의, 사회와의 유리 등을 낳게 되었다. 이런 경쟁과 분립의 시대인 한국 교회 제2의 물결의 시대에는 분열과 경쟁의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동시에 한국 교회가 가장 왕성하게 성장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1980년 후반에 제3의 물결의 징조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다. 제3의 물결은 균형과 연결을 강조하며 협력에 민감하게 한다. 교단간의 협력과 통합의 모색이 활발해지며 연합과 일치를 위한 움직임과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 교회도 장로교회의 교단간의 연합과 일치, 장로교 협의회를 통한 연합 운동, NCC를 비롯한 연합운동체에 대한 새로운 관심, 개신교와 천주교의 대화 모색 등 근래에 와서 연합과 일치가 활발하게 된 것은 제3의 물결로 옮겨가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⁴⁷⁾

47) 칼 F. 조지, 「성장하는 미래교회 메타교회」 op, cit., pp. 23-26.

1. 개교회주의의 퇴조

한국 교회의 개 교회주의는 교회성장이라는 교회의 대 명제 때문에 한국 교회의 한 특징이 되었고, 교단주의와 교파주의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한국에는 대형 교회가 유난히 많다. 개 교회주의의 발달은 대형 교회를 양산하게 되었으나 최근에 와서 한국의 대형 교회도 서서히 성장이 느려지는 추세이다. 경쟁과 분리의 세계관은 교회로 하여금 어떤 신학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개 교회주의를 지향하게 하였으며, 개 교회는 강하지만 교단이나 다른 연합기구는 왜소하게 만든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한국 교회는 개 교회는 크지만 노회와 총회는 작고 힘이 없으며, 교회가 연합하여 어떤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것보다 개 교회가 하는 것이 더 편하고 잘된다. 근래에 와서 이러한 교회의 외적 성장은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외부로부터의 도전의 대상이 되었고 많은 젊은이들은 교회를 외면하게 되었다. 미래형 교회관은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소유 개념이 지배하던 교회관이 미래에는 임대 개념으로 전환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반드시 부모의 교회가 바로 자녀인 나의 교회라는 소유 개념이 희박해지고, 내 교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의무감도 사라질 것이다. 개교회주의를 퇴조시킬 또 하나의 미래 현상은 이동성(mobility)이다. 미래 사회의 이동성의 증대는 교인들로 하여금 거리 개념을 희박하게 하고 흩어지게 만들 것이다. 이러한 외부적 사회 변화는 개 교회주의를 퇴조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나 이것 외에도 내부적 교회 개혁의 목소리는 개 교회주의를 퇴조시키는 압력이 될 것이다.

2. 출석교인의 감소와 헌금의 상승 현상

사회 변동의 제반 요인은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에 출석하기 힘든 원인을 제공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상승할 것이다. 첫째, 전반적인 출생률의 감소는 출석교인 감소의 근본 요인이다. 둘째, 이동성과 임시성이 출석교인의 감소 요인이다. 지난 20년 간 한국 사회의 이동성을 가속화한 주요 요인은 크게 몇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한국 사회의 이동성을 가속화하였다. 또 다른 하나는 공업화로 인한 이농현상과 농어민의 도시 유입으로

말미암은 도시화가 교인의 이동성을 가속화하였다. 셋째, 출석교인의 감소 요인의 하나는 교회가 수행하던 여러 가지 위로, 도움, 안정, 긴장해소의 기능을 대신해 주는 기능적 대행물의 발달이다.⁴⁸⁾ 레저문화는 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가장 발달된 미래형 생활문화이며, 교인의 이동이라기보다 교인감소의 요인일 것이다. 기능적 대행물의 또 다른 하나는 정보매체의 발달이다. 특히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의 발달은 가상교회를 가속화하여 교회의 유형적 가시성은 사라지고 컴퓨터와 연결된 화상 예배를 통하여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⁴⁹⁾

3. 평신도 사역의 극대화

전 세대는 목회자 한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교회가 특징지어지고 교회 성장도 목회자 한 사람에게 절대 의존적이었다. 이전의 목회에서 평신도는 목회자와의 종속적 관계에서 협력하였으나 미래 목회에서는 목회자와의 동등한 관계에서의 동역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미래 교회는 카리스마적 목회자의 출현보다 평신도 사역이 극대화하고 평신도 사역을 통한 교회 성장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미래 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한결같이 미래 목회를 대중적 카리스마적 목회기 아니라 소그룹을 통한 평신도 중심의 목회라고 한다. 목회자 스스로가 구역 조직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지만 구역의 지도자를 훈련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평신도 훈련이 미래 교회에서 중요한 목회의 내용이 될 것이다.

교회를 다양한 측면에서 그 기능을 논할 수 있겠지만 본질과 사명을 동시에 표현하는 것으로 모이는 교회와 흠어지는 교회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모이는 교회에서의 평신도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에서의 주체사상이다. 둘째, 흠어지는 교회에서의 평신도의 사역은 하나의 작은 교회로서의 사명이다.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모임 때의 모습이 아니라 흠어질 때의 모습이다. 흠어지는 교회가 교회의 참 모습이라고 볼 때에 교회의 주체는 성직자가 아니라 오히려 평신도이며 삶의

48) Ibid.

49) Ibid.

현장에서의 평신도의 자리는 교회의 중요한 자리가 되는 것이다. 앞으로 한국 교회의 목회도 평신도를 중요한 목회적 자원으로 개발하는 일과 동역자적 개념에서 재발견하는 일이 시급하다.⁵⁰⁾

4. 조직 교회에 대한 반대

조직이란 인간 사회의 하나의 필수적인 요건이었고 인간을 공동체의 요소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직이란 "일정한 공동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의 집단"을 의미하는데 그 집단 자체를 넘어서서 "공동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의 체계"를 뜻한다. 공동의 목표를 수행하려면 이미 집단은 업무를 발생하고 조직은 그 업무를 체계화하게 된다. 미래형 인간은 통제를 싫어한다. 미래 교회 교인들은 그들이 성장하고 교적을 가진 교회에 대한 충성심이 지극히 미약하게 변하고 그들의 부모와 같은 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교회관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미래 교회 교인들은 조직 교회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며, 그들이 새로운 교회를 찾는 근본 목적은 그들의 자녀를 위한 봉사과 프로그램 때문이 될 것이다. 교회의 조직은 전통적 구조에서 새로운 미래형 구조로 혁신해야 할 것이다. 미래 교회의 조직이 중요한 것은 미래형 인간이 조직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조직을 거부하는 미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교회 조직도 미래형으로 개혁되어야 하며 이런 시도는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5. 교회의 일치와 에큐메니즘의 활성화

교회 연합을 의미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은 1900년대에 들어오면서 관심의 중심으로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19세기까지 분열을 거듭하던 개신교회는 20세기에 접어들면서 교회 연합과 일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이 가운데 교회가 주목해야 할 변화의 요소는 다양성의 포용이라는 점이다. 특히 미래 교회는 다양성의 포용이라는

50) 김재현, 「이것이 21세기 전도이다」 (서울: 두돌비서원, 1994), p. 62.

새로운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며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리되어야 하는' 제2물결의 가치를 초월하여 '서로 다르기 때문에 포용해야 하는' 제3의 물결의 가치를 존중하게 될 것이다.

6. 교회 마케팅 이론의 발달

미래 교회의 교인들은 다양성을 인정받기를 원할 것이다. 자신의 개성을 보존하고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지 않고 살기를 원할 것이다. 교회에 대한 요청도 다양하게 발달하여 교회에 대한 기대도 각인각색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세대를 교회에 끌어들이려면 미래 교회는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마케팅이란 소비자의 취향과 기회에 직접 호소하는 판매 전략이기 때문에 치밀하고 전문적인 계획을 요구한다. 마케팅 과정은 다음과 같다.

- (1) 시장조사(market research)
- (2) 컨셉트 플래닝(concept planning)
- (3) 생산(production)
- (4) 판촉활동(sales promotion)
- (5) CI (corporate identity) 또는 PL(personal identity)

근래에 미국에서 상당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미국 개신교 제2의 대형교회인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Willow Creek Community Church)의 하이벨스(Bill Hybels) 목사나 새들백 교회의 릭 워렌목사는 이웃들에게 교회에 대한 요청을 설문으로 조사하여 지역 주민이 원하는 교회를 설립하였다. 그는 "우리는 성경과 배치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고객을 따르기로 결정하였다"고 하였다.⁵¹⁾ 이것이 교회의 마케팅 전략이다. 근래에 와서는 미국에서는 전신을 통한 마케팅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전화나 우편 등을 통하여 고객을 유치하듯이 주위의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다. 적어도 다음의 비전들이 있어야 한다.

- (1) 창조적이고 영감 있는 예배

51) 진미애, "새들백교회는 이렇게 성장했다" 「월간목회」 1998년 4월호, 서울: 월간목회사, pp. 60-65.

- (2) 성경적이고 실생활에 관련된 가르침
- (3) 활기 있고 도움을 주는 친교
- (4) 봉사와 전도로 지역 사회에 미칠 수 있는(outreach)기회

교회의 미래 비전을 성공적으로 성취하기 위하여 교회는 위의 단계를 지역 주민에게 관심을 끌 수 있도록 구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를 분명히 알릴 수 있는 테이프나 브로셔 등의 홍보 자료, 잘 디자인된 교회의 로고, 현장감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새 교우에게 친밀감을 주는 일 등은 필수적인 것이다. 교회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교회 마케팅의 관심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알게 하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양식을 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 마케팅은 물론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근본적인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현실 속에서 그리고 미래 사회 속에서 발달하는 기능적 대행물의 매력에 맞서 경쟁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래의 소비자들에게 공감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 교회 마케팅이라는 것이다. 교회의 마케팅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도나 봉사라는 상품을 조직의 존재 가치를 부여하는 고객이나 지역 사회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관심사이다. 이러한 관심사는 적절한 마케팅 수단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일반 사회방법론이나 행정이론이 적용되는 것을 거부해왔다. 교회는 은혜스러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은혜와 학문을 너무 지나치게 이원론적 구조로 분리하였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 교회는 지금까지도 마케팅 이론을 적용하였고 미래 교회는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다. 교회 경영의 또 다른 마케팅은 자신 있는 일에 초점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확실한 결실을 가져오지 못할 곳에 귀중한 자원을 투입하지 말라는 것이 유효한 마케팅의 제1법칙일지도 모른다. 특히 목회자들의 기능과 개인적 소명은 다양하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병 중의 하나는 어떤 교회든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교회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본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로 말미암아 낭비되는 예산과 계획의 연기 및 무산은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 개발해야 한다. 그 다음의 마케팅 법칙은 고객을 아

는(적극적, 소극적, 출석은 하지 않지만 전도가 될 사람 등)것이다. 나아가서 교회는 정확한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데에 가장 기본적인 과제인 시장에 관한 지식과 조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흔히 일반 마케팅에서의 시장조사는 중요한 과제이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주변의 조사를 더 면밀하게 해야 할 것이다.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에 단순하게 몇 천 가구의 아파트가 건립된다는 정도의 시장조사로 교회를 개척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교회 리서치 회사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교인들의 의식, 교회 주변의 환경, 미래 전망적 목회 정보, 바람직한 지역 사회에 대한 사업 등 광범위한 조사를 대행해 주고 있다. 교회의 마케팅을 위하여 교회는 이러한 리서치 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⁵²⁾

미래의 교회는 마치 사업가가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마케팅을 하는 것처럼 교회가 기존의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성경에 배치되는 것 외에는 신자들의 요구에 따르게 될 것이다.

7. 영성적 기능의 부활

1990년대의 마지막 몇 년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성을 추구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지난 수십 년 동안 물질과 과학만능으로 살아온 인류는 이것들에게서 만족과 행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타락과 고갈을 체험했다. 21세기에 진입하게 되면 이러한 영성적 추세는 더욱 발달할 것이다. 그래서 과학적, 물질적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교회만이라도 영성적이기를 기대하며 교회까지 물질적이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과학기술이 극도로 발달하는 미래 사회에서 교회를 찾는 그리스도인들은 과학기술이나 물질을 추구하러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성적인 것을 얻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게 되므로 교회는 더욱 영성적이어야 하고 덜 물질적이어야 한다. 물질문명의 발달로 영적 기근에 빠지게 될 미래 교회에 영성적 기능의 부활은 새로운 교회 갱신의 길을 제공할 것이다.⁵³⁾

52) 이성희, op, cit., p.41.

53) Ibid.

8. 디아코니아의 발달

미래 목회는 분명히 내향성보다는 외향성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사회적 요청은 결국 목회자로 하여금 사회성에 관심을 가지게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위와 같은 미래 교회 메가트렌드와 더불어 상당히 뚜렷이 부각될 미래 목회의 내용은 디아코니아의 발달일 것이다.

디아코니아란 '시중들다', '봉사하다'는 의미를 가진 디아코네인이라는 동사에서 온 말로 봉사, 구제, 혹은 섬기는 일을 의미한다. 실제로 디아코니아는 교회의 한 목적이다. 교회의 3대 목적을 케리그마,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케리그마의 내적 기운이 코이노니아라면 케리그마의 외적 작용은 디아코니아다.

미래 사회는 교회에 교회의 것을 나누기를 요청한다. 최근에 와서 한국 교회는 이에 대한 자성이 소리가 높다. 교회의 사명은 결국 사회를 위한 것이고, 사회의 구원이 교회의 사명임을 알게 되었으며, 디아코니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관심이 미래 교회에는 증대될 것이며 디아코니아는 교회의 생존 방식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미래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 남은 일은 디아코니아이며, 디아코니아는 미래 사회에 발전하게 될 것이다.

9. 교회 정치의 민주화

한국 사회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지방분권적 사고로의 전환이다. 지방분권적 사고로의 전환은 민주적 사고로의 발전을 의미하며 교회도 이미 이러한 지방분권적 사고가 발달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장로교회의 당회는 상당한 중앙집권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당회의 결정은 불복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회의 기관이나 부서에서 당회의 일방적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예가 늘고 있다. 지방화와 세계화의 영향으로 교인들의 사고구조가 관료적인 틀에서 벗어나게 되어 관료적이며 지배적인 중앙집권적 교회구조는 더 이상 교인들에게 매력적이지 못할 것이다.

10. 여성의 교회 정치 참여의 증대

산업사회의 부산물인 분열과 경쟁은 갖가지 차별을 낳게 되었다. 인간과 자연의 차별성, 자본가와 근로자의 차별성,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차별성 등이 그 결과이다. 남성과 여성의 차별성은 그 역사가 산업사회에 와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를 가진다. 더구나 사회에서의 기업이나 교회에서의 정치와 직제는 남성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러한 유물이 성차별은 미래 사회에 가서는 극소화하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대될 것이다.

11. 목회 구조의 대변혁

거대한 인간 교류, 속도감의 증대 그리고 정보의 발달 등으로 현재와 같은 목회구조는 사라지고 새로운 목회 구조가 출현할 것이다. 미래 교회에 적응하는 목회 구조를 다음과 같이 예측한다.

1) 성장 구조에서 성숙 구조로

한국 교회는 일반적으로 성장 구조를 택하고 있다. 미래형 교회인 메타교회를 위해서는 구역 조직이 필요하지만 미래 교회의 구역은 종래의 구역과는 다른 기능을 가질 것이다. 즉 지금까지의 구역은 성장을 위한 구조로서 교인들에게 연대감을 심어 주며 실종교인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이 강조되었으나 미래 교회는 이보다 평신도의 훈련이 강조될 것이다. 왜냐하면 미래 교회는 성장 위주의 구조가 아니라 성숙 위주의 교회로 개혁되어야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개인 목회에서 팀 목회로

미래 사회의 또 다른 변화의 하나는 다양성의 극대화이다. 그러므로 미래 교회는 다양성을 포용해야 하며 동시에 통일성을 추구해야 하는 이중성을 가지게 된다. 다양한 목회구조 속에서 일치와 통일성을 이루기 위하여 연구 시도되고 있는 것이 팀 목회이다. 이것은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목회에 참여하는 총체적 개념을 가진다.

3) 블록화 조직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인간의 사고 구조는 정보로 변화하고, 지역화 시대를 맞이하여 인간의 사고는 지역화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여 교회는 교회의 구조를 블록화하고 정보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래 교회의 네트워크는 다양하게 발전할 것이다. 어떤 네트워크는 교단 안에서 형성될 것이고 대부분의 네트워크는 교단이나 교회의 배경에 관계없이 서로의 동일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신의 필요에 따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네트워크에 가입하게 될 것이다. 이미 사람들은 교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선택한다. 이전 시대에서는 교단을 선택하였고 목사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미래 교회에서는 교단이나 목사가 아니라 교회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결론

결론적으로 21세기 한국교회의 미래를 논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통일한국의 문제와 교회의 관계이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정치적 과제일 뿐 아니라 선교적 과제이다. 통계에 의하면 북한에는, '봉수교회'와 '칠골교회'가 있다. 이 교회들은 교단명이 없는 교회이다. 남한의 교회가 북한에 교회를 재건할 때는 교단의 교회나 교파의 교회가 아닌, 교단명이 없는 교회를 세워야 한다. 교단의 교파의 경쟁과 분열은 남한에서 한 것으로 족하고 이제는 일치와 연합을 위한 미래 세계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미래 교회가 미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선교 과제는 각자의 격차를 줄이는 일이다. 먼저 복음을 적절히 문화화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구속하는 제반 요인을 제거해야 하는데 곧 교단 제국주의와 문화제국주의이다. 복음을 전하는 대신 교단을 전하고 문화를 전하는 것은 교회연합에 장애를 초래한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는 일은 특히 새로운 선교의 과제인 통일에서 적극 적용되어야 한다.

한국이 중심이 되고 미래 교회에 한국 교회가 중심적 역할을 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 (1) 미래 교회 연구를 위한 지교회, 교단, 연합기관 단위의 기구 조직
- (2) 그리스도교의 도덕성 회복에 대한 자성적 노력
- (3) 미래 교회의 과제에 대한 신학적 탐구
- (4) 미래 목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설정
- (5) 통전적 선교에 대한 연구와 디아코니아의 개발
- (6) 교단간의 경쟁 지양과 교회 연합의 모색

한국 교회는 부흥과 쇠퇴의 기로에 서 있다. 한국 교회는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비관적 견해를 가진 한국 교인들이 많이 있다. 한국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유럽 교회가 걸었던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그 사회적 환경이나 종교적 심성이 유럽의 그것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단정하는 일은 금물일 것이다.

이제 한국 교회는 미래 연구가 더 활발해져서 다가올 교회의 미래 현상을 미리 예견하고, 이에 따를 미래 교회의 목회 패러다임을 정립해 나가는 선견지명이 절실히

요구된다. 예수께서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앎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않겠느냐"고 하셨다. 작은 망대도 준공할 때까지 모든 기획을 통하여 목적 성취가 가능한데 하물며 불확실한 미래 사회에 적응하고 미래 현상을 극복하려는 미래 교회가 아무런 예비 없이 목적을 성취할 수는 없다.

참고도서

- 칼 F. 조지, 「성장하는 미래교회 메타교회」 김원주, 명성훈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7,
- 존 나이스비트, “메가 트렌드” 장상용역, 고려원, 1992.
- H. VanTil, The Calvinistic Conception of Culture (New York: Baker Book House, 1992)
- 빌헬 「목회자가 제자삼아야 교회가 산다」 박경환역 서울: 요단, 1994.
- 김재현, 「이것이 21세기 전도이다」 서울: 두돌비서원, 1994.
- 이성희, 「미래목회 대예언」 서울: 규장문화사, 1998
- 21세기 위원회 지음, 「미래전망 2020년의 한국과 세계」 서울: 문화공보부, 1993
- 그룹 소프트테크놀로지 지음, 「10년 앞을 내다보자」 (1992)
- 노승찬, "각 교단의 교회확장 계획의 성과와 전망", [목회와 신학], 93년 7월호
- 조영엽, 「교회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 진미애, “새들백교회는 이렇게 성장했다” 「월간목회」 1998년 4월호, 서울: 월간목회사,
- "Y세대를 잡아라" 조선일보, 1999년 3월 11일자